

# 전남 여성

vol.02 2012 | 전남여성 제2호  
JEONNAM WOMEN

2012 JEONNAM WOMEN'S PLAZA MAGAZ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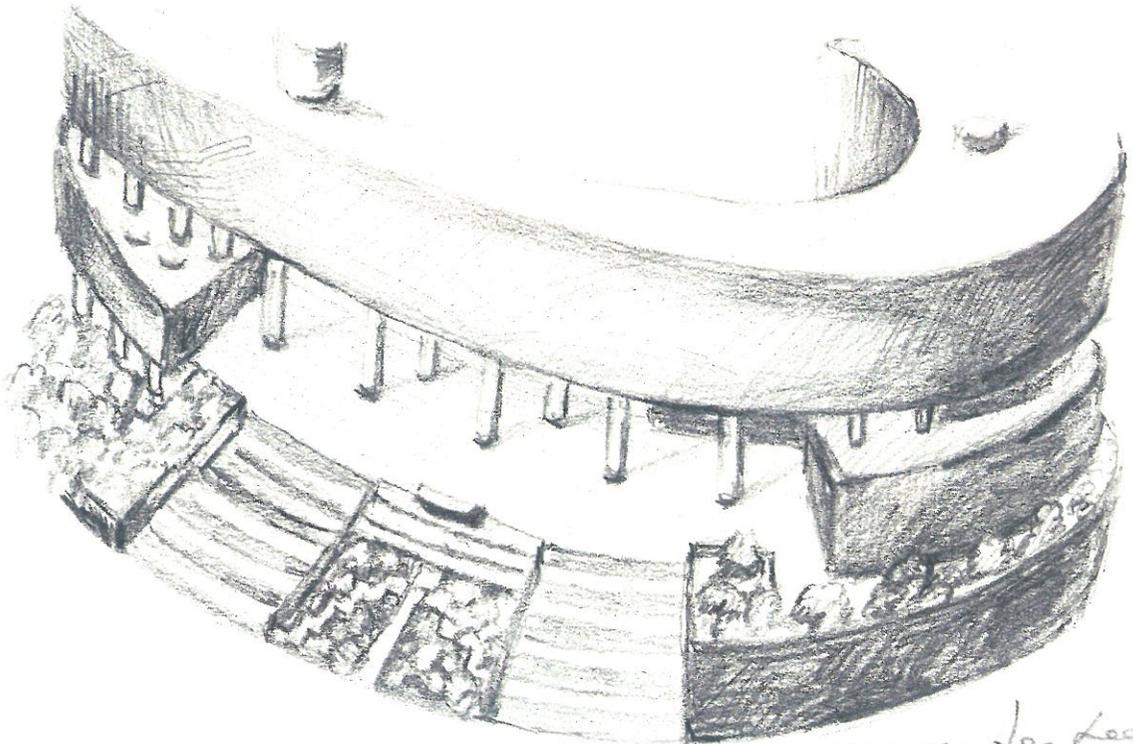


여성의 힘 세상의 빛

# 전남여성플라자



전남여성플라자는 전라남도와 지역여성들의 성원으로  
2009년 4월에 개원한 재단법인으로 여성을 위한 정책연구와 교육훈련,  
여성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전남여성 모두를 위한 기관입니다.



*xyoung lee lee*

## I | C | O | N | T | E | N | T | S |

- 04 • 인생 사계(四季) 주인으로서의 여성! (재)전남여성플라자 원장 최순애
- 05 • 인생의 1모작도 2모작도 전남은 대환영입니다 전라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 배양자



### 전남여성플라자 소식

- 06 • 100세 시대! 전남여성 노후는? 정책연구실
- 07 • 전남체험마을 활성화와 여성인력역할 증대방안 연구 정책연구실  
전남취약계층 여성 및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 정책연구실
- 08 • 전라남도 성인지 통계분석 정책연구실
- 09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란? 성별영향평가센터
- 10 • 교육을 통해 미래로 교육훈련실
- 12 • 가정의 달, 사랑과 존경을 바치다 행정지원실
- 13 • 폭력 없는 세상을 향하여 명여운
- 14 • 이야기가 있는 상차림 / 한상차림 특별전 여성문화박물관
- 15 • 흥화 달항아리에 물들다 / 흥화염색과 다도구 여성문화박물관
- 16 • 새일을 만나다 새일지원본부
- 19 • 24시간 Hot - Line 운영 전남 1366 센터
- 20 • 2012년 사업소개



### 여성인물을 찾아서

- 22 • 전남여성인물이야기 공모전
- 23 • 전남여성인물 지역별 분포도
- 24 • 꽃보다 나무(고려조 공예태후) 정경진
- 26 • 엄마는 소외 부지런쟁이 안영옥
- 28 • 인터뷰-디자인에 미치다 여성창업보육실 추이안 대표
- 30 • 화업 70여년, 유화 크로키의 1인자 서양화가 김영자
- 31 • 전남여성의 서정 / <그곳> 시인 정혜옥



### 전남여성플라자 소식지 전남여성 제2호

발행인 최순애 발행일 2012년 7월

발행처 (재)전남여성플라자

주소 : 534-821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30

대표전화 : (061)260-7300 팩스 : (061)260-7319 홈페이지 : www.jwomen.or.kr

## 인생 사계(四季) 주인으로서의 여성!



안녕하십니까?

올해로 3주년을 맞이하는 전남여성플라자는 그동안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여성일자리 창출 및 미래 여성인력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한다면 봄은 청년기, 여름은 장년기, 가을은 초로기, 겨울을 노년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계절마다 특성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듯이 인생도 각 생애주기마다 원하는 삶의 욕구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올 상반기에 여성플라자는 좀더 심도있는 연구와 교육프로그램, 기획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해 농촌체험마을 여성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와 상담원 양성과정·사회적 기업 및 여성창업아카데미 등을 진행하였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청소년기 생애주기별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전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전남 취약계층 및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가정의 달 공연 및 나눔 행사·100세 시대 전남여성 노후를 위한 특별강사 워크숍·다양한 여성작가 기획전시를 개최하였고 특별히 사라져가는 여성인물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고자 '전남여성인물이야기 공모전'을 통해 숨어있는 여성작가를 발굴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지난 2003년에 발간된 「전남여성 100년」의 보완 및 수정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미있는 활동들은 하반기에도 계속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여성의 바람으로! 여성의 희망으로!' 라는 구호 아래 진행된 '제17회 여성주간'을 즈음하여 발간된 「전남여성」 제 2호와 함께 여성플라자 전직원은 잠재된 여성인력의 활용과 일하고싶은 여성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여성이 100세까지 행복의 주인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재)전남여성플라자 원장 **최 순 애**

## 인생의 1모작도 2모작도 전남은 대환영입니다!



며칠 전 퇴직한 지 5년여 되신 선배 한 분이 아들을 대동하고 찾아왔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그동안의 안부도 살폈다. 그 사이 함께 온 아들이 끼여 들었다. "퇴직하신 후에 할 일이 있어야겠어요. 올 어머니를 보니 더욱 그래요." 했다. 왜냐고 물었더니 직장에 다니던 사람이 집에만 있다 보니 여기저기 아프다 하고 빨리 늙는 것도 같단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단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인생은 2모작이 더 중요하다 했는데 2모작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스쳤다.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지만 아직까지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0% 내외다. 그 외의 여성 중에서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한 20~30%만 생산 현장으로 간다면 지역도 행복해지고 가정도 행복해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전라남도는 동부권의 여수·광양을 제외하고는 큰 기업이 많지 않아 전국에서 제일 못 사는 지역이라고들 말한다. 그런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다. 그 첫째는 국제대회의 유치에 들 수 있겠다. 해양을 주제로 열리고 있는 '여수세계박람회'와 올 10월에 3번째로 열리는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나주에서 열리는 '국제농업박람회', 내년에 열릴 순천의 '정원박람회'는 전남을 살아 숨쉬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여기서 일자리도 상당수 만들어졌다. 둘째는 2만개의 기업유치와 그에 따른 일자리는 지역민에게 희망과 활력을 주고 있다.

특히, 우리 도에는 농업과 관련된 기업이 많다.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지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마음만 있다면 그 일은 소득과 동시에 행복일 수도 있다.

새로운 일의 아이디어를 산업과 연계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젊은 여성들이 가업에 갖은 관심도 권장할만하다. 기술이나 자격증, 경력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일에 대한 열정과 성실성만 있으면 성공할 수도 있다.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에게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자연을 가꾸면서 생명산업에 종사하고 싶은 젊은이나 노년의 여성들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인생의 1모작도, 2모작도 전남은 대환영이다!

전라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 배 양 자

# 100세 시대! 전남여성 노후는?

## 재앙이 아닌 행복으로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결과에 의하면 오는 2020년이면 사실상 '100세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에 반해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닥쳐올 100세 시대를 '재앙'으로 인식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준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전국 평균 노령화 지수는 69.7이며,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전남, 경북, 전북, 강원, 충남, 부산, 충북, 경남 등으로 나타났는데, 전남은 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어 노령화로 인한 대책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재)전남여성플라자가 이러한 문제점을 전남여성과 같이 공유하고자 개원 3주년 기념행사로 기획된 자리이다. 100세 시대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미래와 연결된 일이고 좀 더 신속하게 대처를 함으로써 '재앙'이 아닌 '행복'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행사의 강사로 초대된 오종남(서울대학교) 교수는 '100세 시대! 전남여성의 아름다운 노후설계'라는 주제로 자식을 제대로 기르는 것도 여성리더십이다, 노후설계는 왜 필요한가?, 노후대비 어떻게 할 것인가?, 행복에 이르는 길, 세익 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다 라는 강의를 통해 100세 시대에 대한 인식 뿐만 아니라 노후대비에 대한 강의로 청중의 공감을 얻었고, 강혜정(전남대학교) 교수는 농촌지역의 연건분석을 통해 노후 소득 안정화 방안! 농업인의 노후실태라는 주제로 노후대책의 개념, 노후소득 대책의 필요성, 고령화 실태 및 전망, 고령인의 소득실태에 대한 강의와 농업인의 노후소득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어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남여성단체, 공무원, 지역주민 등 200여명의 전남여성이 참여하였고 좀 더 내실있는 노후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부대행사로 국민연금공단의 '연금상담', '사회적기업 컨설팅' 등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향후 전남여성플라자는 전남여성의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 더 다양하고 알찬 행사를 기획하여 전남여성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 전남체험마을 활성화와 여성인력역할 증대방안 연구

전남체험마을 성공·실패사례를 통한 전남형 체험마을모델 및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여성인력 실태조사와 여성의 역할 증대방안을 모색한다.

우리나라 도시민들은 소득향상, 주5일제 근무·수업 등 여가시간의 증대와 교통의 발달로 관광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반면, 농촌은 농가인구 감소, 노령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 체결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어가고 있다.

체험마을 사업은 도시민들의 관광육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농촌지역은 농외소득원을 증대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시설노후, 편의시설 부족, 체험프로그램의 단조로움, 마을 주민의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사실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그동안 농어촌지원복합산업화로 지원해오던 예산체계가 올해부터는 일반농어촌개발로 변경됨에 따라 안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1년도 농수산식품부에서 평가한 성공마을 46곳, 발전가능마을 159곳 중 전라남도 성공마을과 발전가능마을 30곳을 대상으로 사업추진과 운영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사무장 인터뷰와 참가가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촌지역의 활성화와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여성인력역할 증대에 관하여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전남취약계층 여성 및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

6월 8일에 '전남취약계층 여성 및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사회적 이슈와 관심이 증폭되고 있고 특히 전남지역의 성폭력 발생 빈도가 타 지역보다 높은 시기에 취약계층 여성과 아동을 위한 성폭력 예방 정책간담회는 400여개 가까운 지역아동센터 가운데 40여곳을 방문하여 심층면접을 한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시스템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각 관련기관들의 원활하고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기에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전남지방경찰청, 전남도청, 전남교육청, 성폭력 상담 및 교육기관 등 유관기관 관련자들이 참여하였다.

정책간담회에서는 전남취약계층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연구와 관련하여 전남의 지역아동센터 심층면접 결과 발표와 사례 및 현장에서의 고충사항과 예방 대처방안 등과 더불어 실질적인 정책제언이 나올 수 있도록 관련기관 담당자들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이 간담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전남의 취약계층의 성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예방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한다.



# 전라남도 성인지 통계분석 :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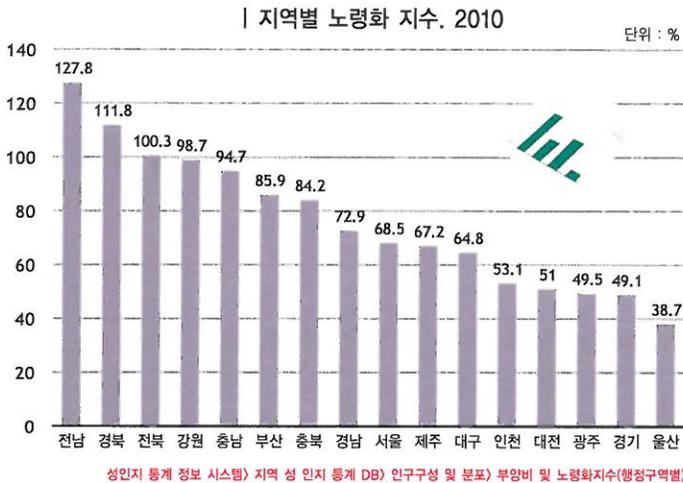
전남 노령화지수 전국 최고

전남 65세 이상 노령인구 총 여성 77%에 달해

## 성인지 통계란?

협약의 차원에서는 개별차원(individual level)의 통계에서 남녀로 분리되어 있는 통계를 말하고 광의의 차원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조건과 사회 공헌, 남녀의 필요한 특수한 문제를 반영하기 위해 생산, 제시된 통계자료 일체를 말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성별로 불평등한 현상을 보여주고 이를 철폐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모든 통계를 말한다(2011 여성가족부·통계청).

통계청 조사(2010년)에 따르면 여성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고 외국인이 전체인구의 1.27%를 차지한다. 특히 노령화가 127.8%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노령화지수는 69.7%이며,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전남, 경북, 전북, 강원, 충남, 부산, 충북, 경남 등인데, 수도권 및 광역시보다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한 지역의 노령화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남은 그중 제일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2010년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를 조사한 결과(<http://silver.jeonnam.go.kr> 전남시군별 노인인구현황 참조) 전체 191만9천명 가운데 18.3%가 노인인구 비율로 나타났는데, 그 중 여성이 77%였다. 지역별로는 고흥군의 노인인구 비율이 32%로 가장 높았고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무안군을 제외한 17개 시·군의 노인인구가 이미 20%를 상회하였고 모든 시·군의 노인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 노인인구에 대한 대책 특히, 여성노인인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란?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남성과 여성이 생물학적·사회적으로 다르고, 그에 따라 욕구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만들어 졌다. 즉, 정책사업이 남녀의 차이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통한 개선사례

**어두운 교통승강장과 공원 방범취약지역의 CCTV 미설치**

- 여성과 노약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도시 설계

- 보행로 및 이용공간에 밝은 조명과 CCTV 설치
- 산책로 조성시 여성의 보행환경 및 유모차를 고려한 포장재료 사용
- 화장실 내 기저귀갈이대 및 수유실 설치 (경기도, 2006)

**성인 남성 중심의 지하철 손잡이**

- 성인남성들이 가장 이용하기 편한 높이(167cm)로 설계되어 어린이, 노인, 여성들의 사용 불편

- 서울 지하철 5~8호선 각 1편(8량)의 객차에 167cm보다 10cm 낮은 위치에 손잡이 설치

**여성화장실에만 있는 아기 변기와 기저귀교환대**

- 아빠와 동행하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 부족

- 보건소, 구민회관, 체육문화회관 등의 남자 화장실 내에도 아기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 유아를 동반한 부부가 자녀를 함께 돌볼 수 있게 됨

**남녀에게 차별적인 법령들**

- 배우자 사망시 아내는 바로 연금 수령, 남편은 60세 이상이거나 중증장애인일 때만 수령가능  
- 고압가스 폭발사고로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남성에게 여성보다 낮은 보험금액 적용

- 유족연금 수령 시, 남편과 아내에게 동일한 기준 적용
- 고압가스 폭발사고에 대한 보험적용 시, 남녀 모두 7급을 적용하여 동일한 보험금액 지급

## 전남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교육·컨설팅·우수사례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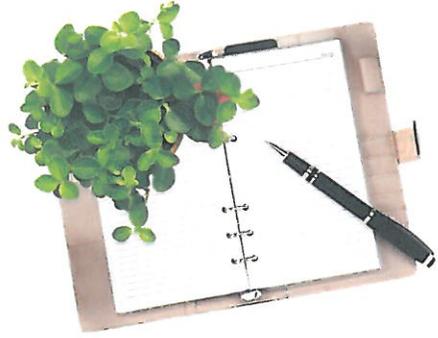
전남여성플라자는 전남지역의 여성정책연구와 성 주류화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2010년 11월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전남지역의 조례 제정 및 정책들이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수립되는지를 평가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서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자문하는 활동을 전개해왔다. 컨설팅은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지속된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컨설팅 뿐 아니라, 평가와 관련된 교육, DB 구축 및 관리운영, 모범사례 발굴 등의 활동을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교육을 통해 미래로



## 무안군민을 위한 정보화교육 - 2012 무안군 정보화교육

무안군민의 정보화교육 기회 확산을 통해 주민간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해 3. 12 ~ 4. 20일 까지 'ITQ한글, ITQ엑셀, SNS(트위터와 페이스북)' 교육을 실시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역량강화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및 지방 성인지예산 도입에 따라 전남도 공무원들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4. 19 ~ 4. 26일(4회)에 걸쳐 1,363명을 교육하였다.

## 성폭력상담원 양성교육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신체적 안정을 돕고,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심리적 지지와 법률·의학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상담원을 양성하기 위해 3. 5 ~ 4. 13일까지 총 102시간에 걸쳐 31명의 상담원을 양성 하였다.

## 3년 연속 사회적기업 창업학교

5월 1일부터 5월 24일까지 35시간 동안 사회적기업가 발굴 및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창업학교' 를 실시하였다. 본 교육은 전라남도가 전남여성플라자와 소상공인진흥원 목포센터에 공동으로 위탁해 진행 하는 것으로 여성플라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문교육을 진행하고 소상공인진흥원 목포센터는 창업·경영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총 33명이 수료하였다.

## 여성창업아카데미(3기) 교육

여성창업자 육성 및 예비여성창업자의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필요전략을 습득하여 성공 창업으로 이끌기위한 목적으로 예비여성 창업자를 대상으로 3. 27 ~ 4. 12일까지 총 24시간 동안 실시하였으며, 총 32명이 수료하였다.



### 여성성공창업을 위한 e-비즈니스 교육

온라인상에서 제품을 판매·홍보 및 유통경로를 개척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극대화하여 매출증대 및 여성경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시한 e-비즈니스교육은 2012. 4. 30 ~ 5. 14일까지 총 12명이 수료하였다. 교육은 카메라, 스마트폰 기기 매뉴얼이해, 제품사진촬영실습, 블로그를 활용한 홍보전략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교육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위기상황을 극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과정을 5. 7 ~ 6. 11일까지 총 100시간에 걸쳐 운영되었으며 총 25명이 수료하였다.



### 여성살림마당 운영

전남지역 소규모 여성농식품 생산자 및 여성생활용품 창업자들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교류확대와 친환경 생활공감 확대를 위한 생산품을 판매·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농수축산 가공품 및 수공예품 12개 업체가 참여 중이며 매월 셋째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여성플라자 2층 로비에서 운영된다.



### 군인대상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진행

군내에서 발생하는 제반 성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성평등의식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성인지력 향상을 통해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뜨리며 군내의 인권감수성을 높여 양성평등문화를 확산하여 건강한 군내 조직 문화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전남도내의 5개 부대(강진, 순천, 무안, 영암, 영광의 총 650명을 대상) 중 6. 1일 순천의 31사단 95연대를 시작으로 10. 31일까지 '찾아가는 성인지력 향상교육'과 '인권감수성 향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2012 청소년기 생애주기별 양성평등교육 기관 선정 및 교육 진행

전남의 청소년기 양성평등교육기관으로 4. 27일 선정된 중학교 5개교와 고등학교 5개교 총 25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양성평등교육'을 6. 1 ~ 10. 31일까지 '찾아가는 청소년기 양성평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성역할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양성평등한 청소년문화를 형성하고 상호배려하는 건강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함이다.

# 가정의 달, 사랑과 존경을 바치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5월 26일 공연과 나눔행사가 열렸다.

2009년에 개원한 이후, 전남여성들의 미래를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는 전남여성 플라자의 이날 행사는 지역민들의 어머니께 보내는 편지 사연과 함께 잔잔하고 친숙한 음악이 어우러졌다. 이 공연은 가정의 달, 모든 어머니께 바치는 사랑과 존경의 한마당이었다.



부대행사로는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한 나눔바자회, 전남도내 여성생산자들의 물품을 판매하는 여성살림마당, 천연비누·방향제 만들기과 꽃반지·목걸이 만들기 등 체험행사, 보성녹차와 무안연꽃잎차가 중심이 된 우리 차(茶)시음회, 나의 간편 이미지검사와 나의 가능성 나무를 주제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청소년 심리검사와 장난감 전시, 어린이 쉼터 운영 등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하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이날의 수익금은 미혼모 보호시설 '성모의 집'에 위문금으로 전달하였으며 여타 업무지원 및 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할 것을 협의하였다.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상담원 명 여 운

여성복지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회복지사로서 여성폭력과 관련된 강의나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던 중 '전남여성플라자'에서 「성폭력상담원 양성과정」을 실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평일 오전부터 진행되는 교육이라 직장을 다니면서 듣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고민도 했었지만 내 안의 여성복지를 확립하고 발전 시키기 위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소장님의 허락을 받고 교육을 수강하게 되었다.

교육 초반부에는 여성인권과 폭력, 성인지관점, 양성평등, 섹슈얼리티의 이해나 여성과 사회복지 등 여성에 초점을 맞춘 강의를 이루어졌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자 성폭력의 이해나 접근, 성폭력에 대한 여성학적 시각,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한 이해로 이론을 다져나갔다. 이를 통해 성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고 더불어 성폭행 사건이 피해자가 문제라고 보는 피해자 유발론의 인식을 탈피하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나 가해자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실제 상담에서 필요한 태도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이론 이후에는 실제로 상담에 필요한 이론이나 기법, 경찰수사나 법적 절차 및 대응방식에 대한 지식을 쌓아 상담원으로서의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었다.

후반부에서는 상담유형별 접근과 사례를 통한 실습을 거쳐 실제 상담의 느낌이나 분위기를 경험하였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성된 교육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로 상담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그렇게 길었지만 짧았던 교육이 끝나고 마지막에 자신이 어떤 상담원이 되고 싶은지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성폭력상담원 양성교육이 좁게는 지역사회에서, 넓게는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꼭 필요한 교육이었다.

사회 구조나 환경은 개인의 인식이나 태도에 무척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알게 모르게 성차별적인 인식이나 태도를 습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성폭력상담원 양성과정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마지막 소감 발표시간에는 많은 교육생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차별적인 인식이나 태도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제도나 인식을 탈피하고 여성주의적 시각을 가진 상담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좁게는 여성에서, 넓게는 모든 사회적 약자들이 폭력 없는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도 '전남 여성플라자'에서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성폭력상담원 양성과정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훈련을 개최했으면 좋겠다. 여성복지의 길에 크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전남여성플라자' 관계자분들과 훌륭한 강의를 준비해주신 강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 <이야기가 있는 상차림>展

한 해를 시작하는 특별전 『이야기가 있는 상차림』전은 소통과 공감을 주제로 개성 있는 5가지 스타일로 구성되었다.

- 소중한 내 아이를 위한 돌상차림 <튼튼하게 자라다오!>
- 결혼 전 친구들의 정성이 담긴 브라이덜 샤워 <Bye... Hi>
- 재미난 놀이와 꿈으로 장식한 아이 생일파티 상차림 <장난감기차>
- 결혼한 자매들의 수다가 꽃처럼 피어나는 티타임 상차림 <수다, 꽃피다>
- 정겨운 친구들과 함께하는 한식안주 상차림 <시나브로>

이 전시는 푸드스타일리스트 정희정 작가와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수료생들의 작품으로 2. 3~ 2. 24일 까지 개최되었다. 음식에 얽힌 주제가 있는 퓨전요리와 스토리텔링이 곁들인 사진이 전시장을 화사한 분위기로 이끌었다. 이는 일상의 평범한 상차림을 창조적인 디자인미학으로 승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도음식 문화를 좀 더 다양한 장르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였다.





## <홍화 달향아리에 물들다>展

전시가 열리고 있을 즈음에는 벚꽃이 만개하고 있었다. 3. 27~4. 27일까지 개최된 <홍화, 달향아리에 물들다>展, 홍화염색가(안화자)와 도예가(김영설) 2인이 만나 화사하면서도 청순한 봄의 기운을 선보였다. 안화자 염색가는 비단포도문, 삼베귀면문을 소재로 했으며 김영설 도예가는 달향아리를 비롯한 청화백자다기, 오방색차잔, 소금물유약으로 제작한 소금유다기 등을 선보였다. 이들은 모두 자연 속에서 발견한 천연재료로 개성있는 공예미학을 창조해냈다.

홍화염색은 열으면서도 깊고, 깊으면서도 우아한 색채의 향연이 참으로 고왔다. 곱기만 하라. 여성들은 그 염색으로 옷 한 벌 해입고 싶은 소망을 품었고, 홍화빛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싶어했다.

푸근하고 넉넉한 달향아리는 여심이고 모성의 상징이다. 그 외 전시장을 풍요롭게 한 다구들은 일상다반사인 차 마시는 일을 예술적인 경지로 격상시켜주는 작품들이다.

각자 빛나면서도 아름다운 조화, 이 여성작가와 남성작가의 만남은 '전남여성플라자'의 양성평등문화의 일환으로 마련된 전시로 우리 전통문화를 잇는 귀한 공예작품들이다.



# 새일을 만나다

전남새일지원본부는 도내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을 도와드립니다.

## 행복한 삶은 내가 이룬다

어린이집 조리보조원 취업자 누엔티몽검

2003년 베트남에서 한국에 대한 기대를 갖고 시집왔으나 기대와는 달리 남편의 직장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분유값이 없을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좀 더 여유롭고 화목한 생활을 위해서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일과 육아를 같이 할 수 있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찾기 시작했다. 막상 취업을 원하긴 했지만 특별한 자격증도 없고, 8년 넘는 기간 동안 아이만 키워왔던 터라 자신감도 없었으며 취업은 멀게만 느껴지는 꿈만 같았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해남군 취업설계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봐주고 직접 동행면접까지 해주어 구직을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어린이집 조리보조원으로 취업하게 되었다. 혼자서 면접을 보러 간다는 게 큰 부담이었던 나에게는 취업설계사의 동행면접이 큰 힘이 되어 주었고 면접시 답변이 막힐 때마다 도움을 주셨다. 또한 취업 후에도 전화는 물론 직접 방문해서 격려도 해주어 직장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정규직원으로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형편이 더 나아졌고 남편, 두딸과 함께 무척 행복하다.



## 나는 내가 참 좋아! 무조건 내가 좋아!

새일센터 미지정 지역 주부취업상담교실 운영

전남새일지원본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취업대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라남도의 지원을 받아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주부 취업상담교실』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오랜 경력단절 기간으로 인해 취업에 대한 자신감과 구직기술이 부족한 여성들에게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금번 교육은 올해 현재 400여명의 여성이 참여하였으며, 나를 발견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교육내용과 참여형 교육진행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있다.

### ◆ 프로그램 내용

구분	소 재 목	시간	내 용
1일차	내 삶의 주인공되기	3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섯 손가락 이야기</li> <li>인생여행게임</li> </ul>
2일차	나의 소중한 꿈과 목표 찾기	3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로와 직업세계 이해</li> <li>나를 비추는 거울</li> <li>나의 소중한 세 가지 가치</li> </ul>
3일차	내 인생의 진로와 직업	3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력서 작성, 면접기법</li> <li>직장인 매너</li> <li>나의 가능성의 나무</li> </ul>



## 애들이! 공부는 달지?

생각이 자라는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주경미



오늘은 아이들에게 어떤 씨앗을 심어주고 올까?

전남새일지원본부를 통해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아이들과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늘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나는 지금 새일본부의 도움으로 교육복지우선지역 대상 학교에서 진로교육과 자기주도학습을 접목하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자존감이 낮아 어떤 일에도 흥미를 보이지 않는 아이, 공부 방법을 잘 몰라 힘들어 하는 아이, 그냥 공부가 싫은 아이 등 여러 아이들을 만난다.

처음에는 그저 공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라 생각하여 아이들이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말수가 많아진다. 일주일간 생활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부터 배운 것을 실천한 결과를 자랑하기도 하고 부모님이나 친구와의 문제까지도 털어 놓는다.

‘내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설레임으로 수업을 시작하지 어느덧 일년 반이 되어간다. 가끔은 아이들의 더딘 변화에 마음 아파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덧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작은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있음을……

우리는 그런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믿음으로 지켜봐주어야 함을……

오늘도 나는 아이들과 함께 크게 외친다.

“애들이! 공부는 어떻게?”

“공부는 달아요!”

## 여성친화일촌기업 환경개선 지원

환경개선자금 1개 기업당 300만원 지원

전남새일지원본부는 여성친화 일촌기업을 대상으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기업으로 5곳을 선정하여, 1개 기업당 3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여성전용시설인 여성화장실, 샤워실, 휴게실(탈의실), 수유실, 임시놀이방 등의 시설 개·보수와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여 여성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의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은 도내 기업 중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300인 미만의 여성·가족친화 경영을 약속하는 기업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자금 지원 외에도 새일여성인턴 우선연계 및 취업알선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올해 현재 30개 기업과 일촌기업 협약을 맺었으며, 도내 많은 기업들이 가족과 여성친화적 기업문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일촌기업 협약을 확대할 것이다.



◎ 각 시·군별 취업설계사 연락처 ◎

파견지역	연락처/팩스	파견지역	연락처/팩스
여주시 여성문화회관	T. 690-2764 F. 690-8249	강진군 가족복지팀	T. 430-3151 F. 430-3159
순천시 여성가족과	T. 749-3251 F. 749-3582	해남군 여성회관	T. 536-3566 F. 530-5720
나주시 취업정보센터	T. 732-9191 F. 233-1062	영암군 종합사회복지관	T. 470-2823 F. 470-2824
담양군 여성회관	T. 380-3311 F. 380-3543	무안군 사회복지과	T. 450-5517 F. 450-5127
곡성군 복지과	T. 360-8257 F. 360-8582	함평군 주민복지과	T. 320-3772 F. 320-3794
구례군 여성문화회관	T. 783-2366 F. 783-2367	영광군 주민생활지원과	T. 350-4891 F. 350-5595
고흥군 여성회관	T. 830-5344 F. 830-5582	완도군 종합복지회관	T. 552-2668 F. 553-2668
보성군 경제산업과	T. 850-5497 F. 850-5519	진도군 여성회관	T. 540-3320 F. 544-1366
화순군 주민복지과	T. 379-3553 F. 379-3300	신안군 교육복지과	T. 240-8439 F. 240-8583
장흥군 주민복지과	T. 860-0318 F. 860-0582	분부 전남여성플라자	T. 260-7335~8 F. 260-7339

##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새일여성인턴 곡성군 김파비올라



김파비올라씨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즐겁다. 바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새일여성인턴제를 통해 56세의 적지 않은 나이에 사무직으로 4개월째 인턴 근무 중인 그녀는 요즘 다시 일할 수 있다는 행복감에 푹 빠져있다. 기업체 역시 그녀의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모습에 나이와 성별에 대한 편견을 버리게 됐으며 인턴 채용에 매우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일여성인턴제는 기업에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계기를 마련해주고, 경력단절여성은 직장체험을 통해 직무기술을 습득하고 장기근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턴채용기업에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채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직장적용 프로그램이다.

전남새일지원본부는 현재 19개 시·군 66곳의 기업에 총 80명의 인턴을 연계 중이며, 그중 25%는 상대적으로 취업이 힘든 취약계층(결혼이민여성·고령자·다자녀여성 등)으로 기업의 인력난은 물론 전남지역 여성구직자의 취업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전남 여성취업·창업박람회 4회 개최

순천 5월, 목포 9월, 여수 10월, 장성 11월



전라남도도는 도내 기업과 구직 여성들을 연계하고 다양한 취·창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부터 개최해 온 전남 여성취업·창업 박람회를 지난해까지는 목포·여수·순천 중 1곳에서 개최하였으나 올해는 목포·여수·순천·장성의 4개 시·군에서 권역별로 운영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순천에서 5월에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목포 9월, 여수 10월, 장성 11월에 각각 개최된다. 특히, 올해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장성군 여성취업·창업박람회는 군단위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어 더욱 의미가 크며 전남새일지원본부가 장성군과 공동으로

주관하여 개최한다.

장성·나주·영광·담양·함평·화순 지역이 하나의 권역으로 구성되어 나의 소중한 꿈과 목표를 찾고 나의 가치관에 맞는 직업을 탐색해보고 진로·직업을 설정하여 내가 주도하는 삶, 나를 사랑하는 삶을 위해 도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 1366전남센터



여성 폭력 없는 세상! 전남1366이 함께 합니다!

## 교육활동



### 찾아가는 무료 양성교육 프로그램

지난 4월 2일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에 '성모의 집'을 방문하여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한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시설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6월 25일까지 12회에 걸쳐 1일 1시간으로 이루어졌으며 내용은 양성평등에 입각한 성교육, 성인지, 인권교육 등이다.

### 직원 조직역량강화교육

지난 4월 2일과 13일 2회에 걸쳐 1366 전직원을 대상으로 '정서경' 강사를 초빙하여 <다도 및 전통차문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차를 통한 담소가 내담자와의 소통을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 자원봉사자 4월 월례회의 및 교육

지난 4월 12일 오전 10시 '1366 상담실'에서 <1366 자원봉사자 4월 월례회의 및 자원봉사자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날 월례회의에서는 지난달 활동사항 보고 및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과 <상담자의 자질과 윤리>라는 주제의 교육이 실시되었다.

### 개정 가족법 및 가족관계 등록법

지난 4월 24일 오후 2시 전남여성플라자에서 도내 상담소 및 보호시설 근무 상담원, 일반인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료 법률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김진영 상담위원을 강사로 초빙해 <개정된 가족법 및 가족관계 등록법>이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강의가 진행됐다.

## 연대활동



### 폭력예방 민·관 합동 캠페인

지난 4월 3일 <폭력 없는 행복한 강진 만들기>라는 슬로건 아래 폭력예방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강진군청, 강진경찰서, 강진교육지원청, 여성단체협의회, 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 등 기관 단체 관계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폭력 추방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낭독 후 시가행진 순으로 진행됐다.

## 정책연구사업

구 분	내 용
소 계	10개 사업
여성정책 추진 인프라 강화	1. 중·장년기 여성 생활실태조사 및 삶의 질 향상방안 연구 2. 여성평생교육 현황조사 및 수요모델 연구
전남지역 특화 여성정책	3. 농촌체험마을 여성인력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4. 전남 취약계층 아동·여성 피해사례 및 인권실태조사 5. 남도여성포럼 구축 및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6. 전남여성장인 발굴 및 스토리 북 발행
성별영향평가 센터	7. 전남도 성별영향평가 연구 및 지원
운영과제	8. 전남 여성정책 현안 보고서 발행 9. 연구과제 선정 및 심의 평가단 운영 10. 전남여성플라자 소식지 발행

## 교육훈련사업

사 업 명	주 요 내 용	
계	4개 사업, 8개 과정	
지역특화 여성일자리 지원	여성창업자 육성	여성창업보육실 운영, 여성창업아카데미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사회적기업가 양성(기본, 심화교육)
	여성명인 전수인력 양성사업	분야별 특징, 실습 및 명인이야기, 상품화 전략, 창업사례 탐방 등
전남여성 리더십 강화	전남여성 리더십교육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세, 성인지적 생애설계, 자기이해를 통한 진로설계 등
여성전문 인력양성	인권보호상담원 양성교육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과정 성폭력상담원 양성과정
	경력개발전문가 양성과정	커리어발달이론, 커리어 표준화검사, 성인층 커리어상담, 경력개발 설계방법 등
	농촌체험마을 여성인력 역량강화교육	농촌체험마을 관광정책 방향, 마케팅전략, 성공사례 등
성인지 교육	양성평등교육강사 양성 및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실시	

## 문화기획사업

구분	내용
박물관	1. 전남여성작가 발굴 및 전시지원 · 박물관 운영
북카페	2. 북카페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행정지원사업

구분	내용
지역사회 공헌	1. 도민과 함께하는 테마음악회 개최
	2. 훈훈한 『사랑나눔 실천 운동』 추진
시설운영	3. 시설 관리 운영활성화 지속 추진

## 2012년 달라지는 여성가족부 주요정책

###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조성

- 새일센터 등 취업인프라 확충(98→111개소), 결혼이민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13만명 일자리 제공
- 여대생커리어 개발지원사업 확대(32→45개 프로그램), 리더십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지원을 통한 여성 관리자 역량 강화
- 여성친화도시 지정 확대(30개 → 40개 도시)

###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역량강화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토요일까지 확대, 청소년 통합활동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한 학교와의 청소년 체험활동 기록 연계 강화
- 인터넷 레스큐 스쿨 확대,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 설치 등을 통한 인터넷중독 치료지원 본격화

### 가족가치 확산과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 아이돌봄 부담경감(종일돌봄 월40만원→월30만원), 조손가족·미혼모부자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추가 양육비 신규 지원(월 5만원)
- 초기입국 결혼이민자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통·번역지원사 확대(210명→282명), 다문화자녀를 위한 양육·교육 지원 확대

###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장애인성폭력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확충(각 2개소), 10세 이상 남아 동반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8개소 신설) 등 인권지원 인프라 강화
- 공공기관의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현황 국민에게 공개, 성범죄자 인터넷 신상정보를 미성년자에게도 공개

## 전남여성인물의 발자취

전남은 시대적·역사적으로 격랑의 중심에 있었다. 기름진 평야와 너른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으로 내적으로는 봉건적 억압과 착취의 대상이 되었고 외적으로는 수탈의 적격지였다. 따라서 근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저항과 항쟁의 역사가 이어졌다. 중심에 있지 못하고 늘 주변부의 삶을 살았던 여성들은 정치적·사회적 모순의 희생자로서 수많은 불이익을 당해야만 했다. 그런 배경에서 성장해온 전남여성들은 탁월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결과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여러 자료를 통해 전남여성인물의 발자취를 찾아보았다. 이는 현재 이 지역 여성들의 자긍심과 숨겨진 가능성을 찾기위한 시도라고 할 것이다. 전남여성인물에 대한 깊이있는 자료가 부족한 결과 지역별(총 70명)로 정리를 했으나 차후 새로 발굴함에 따라 보충할 것이다.

### 전남여성인물이야기 공모전

(재)전남여성플라자는 전남여성인물을 소재로 한 작품을 공모했다. 잘 알려진 여성인물 외에 숨겨진 인물, 재능이 뛰어난 어머니를 소재로 했으며 공모기간은 3.12(월) ~ 4.20(금)까지였다.

이번 공모전은 전남에서 출생·성장한 여성의 삶을 복원함으로써 전남여성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차세대 여성들의 잠재능력을 창출하기 위한 행사였다.

공모전 결과,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은 작품은 <꽃보다 나무>와 <우리 엄마는 소외 부지런쟁이> 두 편이었다. 장흥에서 태어나고 자란 공예왕후의 일대기를 그린 <꽃보다 나무>와 한 이름 없는 어머니의 삶을 잔잔하게 보여준 <우리 엄마는 소외 부지런쟁이>는 문장력과 가독성에서 좋은 평을 얻었다. 그밖에도 <목포 '소리 꽃 세상' 시낭송회>와 <우리 증조할머니> 이야기가 채택되었는데 각각 구체성과 서사성, 문장력, 상상력으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갔는지, 이야기가 주는 보편성의 가치에 무게를 두었다.

이번 공모전은 중심에서 소외된, 숨어있는 전남여성인물을 발굴하고 이야기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고 전남의 여성 이야기꾼들의 숨겨진 가능성을 찾아내려는 취지였다.

당선자는 <꽃보다 나무>의 정경진, <우리 엄마는 소외 부지런쟁이>의 안영옥, <우리 증조할머니>의 이은정, <소리꽃 세상>의 김형레이며 수상자 발표는 5월 4일(금), 시상식은 5월 10일(목)에 열렸다.



## 전남여성인물 지역별 분포도

지역	인물	분야	비 고	지역	인물	분야	비 고
목포시	박화성	문학	120여편의 소설 창작	고흥군	천경자	미술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이난영	대중음악	대표곡 〈목포의 눈물〉		박반심	국악	고흥한적들노래 무형문화재
	박애순	독립운동	1919년 독립만세시위	보성군	김귀선	독립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
	김세라	기업	여성 선구적 기업가		박춘성(박옥심)	판소리	전남무형문화재
	김송희	문학	〈여류시동인〉 창립 동인	화순군	최씨부인	정경부인	임진왜란 시 자결
	박송희	민주열사	민주화운동		성우향	국악	춘향가 무형문화재
	홍정희	무용	한국 발레의 선구자		박송희	국악	중요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한능선	국악	중요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장흥군	공예왕후	고려조 황후	고려조 왕후, 세 왕의 어머니
	김영자	미술	호남 최초의 여성 화가		소고당 고단	문학	규방가사
	여수시	여성숙	사회공익운동	결핵진료, 봉사	강진군	함동정월	국악
임춘자		여성운동	건국부인회 운동	박영옥		독립운동, 의료	4.4 독립만세운동
윤형숙		독립운동	1919년 독립만세 시위 주도	해남군	현덕신	의료	해주 출신 의사
김향순	국악	동편제 홍보가 무형문화재	고정희		문학, 여성운동	대표시집 〈초혼제〉	
순천시	박초월	국악	판소리,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김길임	국악	강강술래 중요무형문화재
	장월중선	국악	판소리, 경북무형문화재	박양애	국악	우수여성 부녀농요 무형문화재	
	이정순	민주화운동	노동운동가	최옥림	항토주	해남진양주 기능보유자	
	박경자	국악	순천삼설양극 예능보유자	영암군	양방매	독립운동	남평 거성동 전투 참전
나주시	장화왕후	고려조 왕비	태조 왕건의 둘째부인		김죽파	국악	가야금명인, 김죽파류 창작
	임소녀	독립운동	광복군에서 활동, 독립운동가	무안군	이정옥	농민운동	의보투쟁, 여성농민대회 활동
	안채봉	국악	판소리 · 전통춤 명인		고승자	농민운동	의보투쟁, 여성농민대회 활동
	안부덕(안예란)	국악	춘향가 지방무형문화재	영광군	공옥진	국악	창무극의 선구자
	노진남	공예	중요무형문화재 색칠나이		조미미	대중음악	대뷔곡 〈떠나온 목포〉
	조아라	사회운동	YWCA 운동	진도군	삼별초공녀	고려조 삼별초 항쟁	‘삼별초공녀 동병’ 전설
	주향득	농민운동	80년 수세투쟁운동		조공례	국악	남도들노래 무형문화재
광양시	진신애	독립운동	1919년 독립만세 주도		김대례	국악	진도씻김곡 무형문화재
	이성자	미술	프랑스에서 활동	박옥진	국악	여성국극의 선두주자	
담양군	송덕봉	문학	한시 〈덕봉집〉	김금자	국악	강강술래 중요무형문화재	
	고판례	종교	민족종교 ‘증산도’ 지도자	박용순	국악	강강술래 중요무형문화재	
	김삼순	학술	농학박사, 한국 ‘균학회’ 창립	박동매	국악	판소리	
	이정례	정치	한국여성정치연맹 명예총재	강승대	국악	남도잡가	
곡성군	조옥희	독립운동	광주 독립만세운동 참가	허화자	항토주	진도홍주 무형문화재	
	한애순	국악	판소리, 광주무형문화재 1호	김중심	국악	판소리	
	장월중선	국악	판소리, 가야금병창 기능보유자	박중숙	국악	판소리	
	김점순	공예	중요무형문화재 돌살나이	이영자	국악	판소리	
구례군	박향산(박정례)	국악	가야금산조	신안군	강부자	국악	장산도 들노래 무형문화재

※ 이 자료는 「전남여성 100년」 / 전라남도 권(2003), 「이야기 여성사」 / 여성신문사 권(2004) 및 각 시·군의 향토사 자료집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 꽃보다 나무

〈우수상〉  
정 경 진



아이가 태어나던 날 저녁, 외조부는 상서로운 꿈을 꾸었다. 황색의 기가 중문에 세워져 있고, 그 기의 끝이 선경전(宣慶殿)의 치미(都尾)에 얽혀 나무끼는 꿈.

“치미라면 궁정과 성루의 대들보 위를 장식하는 기와가 아니더냐! 실로 하늘이 내린 아이로다!”

대단한 길몽이자 선몽을 꾸 그는 아이가 장차 국모가 되어 선경전을 노닐 암시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1109년 어느 날의 일로, 장흥군 관산을 옥당리 당동마을에서 태어난 여자아이의 외조부는 문하시중 이위(李瑋), 아버지는 중서령 임원후(任元厚)였다.

“타고난 귀태로다…… 후일 이 아이는 꼭 황후가 될 것이야……”

귀인이 될 꿈과 함께 태어난 외손녀를 꿈쩍이 아낀 이위는 아이에게 일찌감치 궁궐에서의 삶을 설게해 주었다.

“아가야, 너는 꽃 같은 여인보다는 나무 같은 어머니가 되어라.”

“외할아버지, 저는 꽃이 더 좋아요. 예쁘잖아요.”

“꽃은 한철이 지나면 지고 말지만 나무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뿌리 또한 깊어진다. 무릇 한 남자의 꽃 같은 여인으로 살다가는 것도 좋겠지만 나라님의 지어미가 되어 백성들의 모후로 살려면 그 어떤 바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필요하단다.”

“그럼 흔들리지 않는 나무 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의 본분을 잃지 않는 거란다. 세상에서 너를 가장 중히 여기는 것.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네게 의지할 수 있지…… 저 나무를 보렴.”

이위는 마당에 있는 매화나무를 가리켰다. 때마침 봄의 전령인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있었다.

“매화가 너무 예뻐요?”

아이가 감탄하는 순간 바람이 불어 와 매화 잎을 우수수 떨어트렸다.

“안쓰러워라.”

부모와 같은 나무에서 떨어져 마당에 아무렇게나 나뒹구

는 꽃을 보고 울상이 되는 아이에게 이위가 물었다.

“꽃잎을 떨어뜨린 게 무엇이더냐?”

“바람입니다.”

“그게 소리란다. 너 또한 앞으로 부모 슬하를 벗어나게 될 날이 오겠지. 그때 저 바람 같은 시련이 다가와 흔들리거나 위신이 바닥에 떨어질 때도 있을 게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너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려무나. 너는 나무 같은 아이니까.”

아이는 할아버지의 말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다. 지금 꽃이 진 자리에서는 열매가 열리고, 그 열매를 수확하면 곧 잎이 무성해질 것이다. 그리고 앙상한 가지로 겨울을 견뎌낸 나무는 내년 봄, 또다시 꽃이 피워낼 것이다. 아이답지 않은 그윽한 시선으로 매화나무를 바라보는 외손녀에게 이위가 당부했다.

“인고의 아픔으로 결실을 맺은 열매로 백성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고, 덕성으로 키워낸 무성한 사랑의 잎으로 고단한 삶에 지친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는 나무 같은 국모가 되려무나.”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암, 있고말고…… 이 할아빈 누가 뭐래도 우리 아가를 믿는다.”

이위의 장담은 비단 꿈만 믿고 하는 허언이 아니었다. 아이는 자랄수록 반듯한 심성과 굳은 의지를 갖춘 일등 신붓감으로 소문이 자자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아이가 열다섯이 될 때까지 궁에서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이 또한 운명인 것을…… 그저 범인(凡人)의 지어미로 살다 가는 것도 여인의 미덕인 것을……”

결국 임원후는 딸을 평장사(平章事) 김인규(金仁揆)의 아들인 지효(之孝)에게 시집보내기로 결심했지만 그리 오래지 않아 그 결정이 천의를 거스르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다. 딸이 시집 간 날 사위가 갑자기 병이 나서 죽어버린 것이다.

“세상에 첫날밤도 못 치루고 급사가 웬일이라?”

“새 신랑 잡아먹는 팔자 사나운 년이 들어와서 김씨 집안을 망치는구나!”

“색시 집에서는 천운을 암시하는 태몽을 꿔다고 애지중지 했다는데…… 글썄, 남의 집 귀한 아들을 잡아가는 저승사자 꿈이지 뭐야?”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임원후의 딸은 파혼하고 다시 친정으로 되돌아왔다.

“이제 널 어찌하면 좋단 말이나.”

“어머니. 이 또한 저의 운명이자 하늘의 뜻이라면 소녀, 천명을 기다리겠습니다.”

뜻밖의 행역 앞에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은 소녀는 외조부가 누누이 강조했던 ‘꽃 보다 나무’라는 말의 의미를 절절히 깨달을 수 있었다.

“이렇게 엄청난 시련을 담담히 인내하시는 것만 봐도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장차 국모가 될 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국방방곡곡에, 자손만대에 이어 이분의 은혜가 함께하실 것이니 부디 때를 기다리시옵소서.”

소녀의 미래를 점친 점술가의 말처럼 조정의 움직임 또한 심상치 않았다. 당시 재위에 있던 인종은 호시탐탐 정권을 노리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인 이자겸을 내치고 왕비로 삼았던 그의 두 딸도 폐위 시켰다. 그리고 폐비 이씨가 친정으로 거둔 날, 인종은 기묘한 꿈을 꾸었다. 꿈속의 폐비가 참깨 5되와 노란 해바라기씨 3되를 주고 간 것이다.

“이 꿈을 어찌 해석하시오?”

인종은 이자겸을 내치기 위해 회유해 온 척준경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의 의향을 물었다.

“소인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참깨는 임자(壬子)를 뜻하는 것이니 후비로 임씨를 들일 징조입니다. 또한 다섯 되란 아들을 말하는 것이며, 그중에서도 노란 해바라기 씨인 황규(黃葵)가 셋이니 다섯 아들 가운데서 세 아들이 왕이 될 것을 암시하는 꿈으로 보입니다.”

척준경의 해몽을 들은 인종은 즉시 임씨 성을 가진 처자를 팔도에 수소문했고, 점술가의 예언대로 임원후의 딸은 연덕궁주(延德宮主)로 추천되었다. 1126년, 고려 17대 왕인 인종 4년 6월의 일로 사실 그 자리는 사가로 따지자면 씨받이 여인 자리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궁주 임씨는 좌절하지 않고 현명하게 궁 생활에 충실했다. 그리고 1127년, 훗날 의종(毅宗)이 될 왕자를 낳아 더욱 인종의 총애를 받게 된 그녀는 마침내 1129년 5월, 왕비로 책봉돼 공예태후<sup>1)</sup>가 되었다. 17살의 나이로 입궐한지 3년만의 일이었으며 첫아들 의종(毅宗; 1127~1173, 고려 18대왕 재위는 24년)에 이어 경(景)·명종(明宗; 1131~1202, 고려 19대왕으로 재위는 27년)·충희

(冲曦)·신종(神宗; 1144~1204, 고려 20대 왕으로 재위는 6년) 등 다섯 형제와, 승경(承慶)·덕령(德寧)·창락(昌樂)·영화(永和) 등 네 공주를 낳은 공예태후는 의종이 왕에 즉위하자 왕태후(王太后)가 되었다. 무신정권이 난무했던 격동의 고려 역사 속에서 혼신을 다해 왕실의 안위와 권위를 지켜온 고려 3왕의 모후 공예태후……。 위대한 그녀의 모성은 꽃보다 나무이고자 했던 굳은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나같이 빼어난 문장을 자랑하며 덕성스러운 효자였던 다섯 아들과 현숙한 왕가의 품위를 잃지 않았던 아리따운 딸들……。 특히 효성이 지극했던 19대 왕 명종은 모후가 병석에 눕자 손수 약을 달여 바쳤으며, 몇 달 동안이나 옷을 갈아입지 않고 눈이 짓무를 정도로 울며 슬퍼했다고 한다. 술한 민란과 반란을 거처면서도 ‘그들 또한 내 백성이니 참혹하게 죽이지 말고 은혜로써 감복시키라’ 당부했던 명종. 그는 원기보충을 위해 즐겨 마셨던 백자인(柏自仁)이란 술도 혹여 농사철에 바쁜 백성들이 백자인을 구하라는 괴롭힘을 당할까봐 일부러 그 술을 끊었을 만큼 자애로운 군주로 유명하다. 모두 공예태후의 자애롭고 엄격한 교육의 힘인 것이다. 장흥 관산에서 태어난 영민한 처녀에서 첫 결혼에 실패하고 씨받이 궁주로 들어가 태후가 된 여걸……。 그녀의 아버지 문충공 임원후 역시 현 국무총리급인 문하시중을 지내는 동안 근검과 청렴, 겸허의 미덕으로 칭송 받아왔으며 오남 삼녀 중 다섯 아들 모두 학자로 유명한 일가를 이루었다. 그의 둘째 딸인 공예태후는 명종 13년인 1184년, 75세를 일기로 생을 마칠 때까지 오직 고려 왕조를 위해 헌신해 온 풍운의 왕비였으며 풍전등화와도 같은 국운에 의연히 맞서 사직을 잇게 해 준 인종의 든든한 동반자였다.

“이렇게 현명하고 훌륭한 아내를 낳아준 처가 마을을 길이 흥할 고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노라!”

왕비의 모친이 죽자 소복을 입은 예까지 갖출 만큼 아내를 사랑했던 인종은 “길이 흥할 고장”이라는 뜻으로 “長興”이라는 이름을 아내의 고향에 하사했으며 그때까지도 보성과 영암에 속해 있던 고을은 비로소 부(府)로 승격되었다. 고려의 국모이자 장흥의 어머니인 공예태후……。 역사의 선봉에는 늘 남성이 영웅으로 등극하지만 진정 그들을 그 자리에 있게 만들어 준 것은 아내이자 어머니다. 그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모성……。 그리고 그 모성에 버금가는 것은 자신을 귀히 여기고 끝까지 신뢰하는 뿌리 깊은 나무와도 같은 의지다. ㄷ

1) 공예태후 임씨(恭睿太后 任氏, 1109년 음력 9월 7일[1] ~ 1183년)는 고려의 17대 왕인 인종의 아내이자 의종, 명종, 신종의 어머니이다. 본관은 장흥(長興), 시호는 공예(恭睿)이다. 중서령을 지낸 임원후(任元舅)의 딸이며 문하시중 이위(李瑋)의 외손녀이다. 1129년 왕비로 책봉되어 연덕궁주(延德宮主)의 호를 받았다. 인종의 총애를 받았다.

# 엄마는 소외 부지런쟁이

〈가 작〉

안영옥

유대 격언에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라는 말이 있다. 결혼한 여자들은 누구나 친정 엄마를 떠올리면 코끝이 알싸해지면서 목올대가 뜨거워질 것이다.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애뜻한 말을 다 합쳐도 친정 엄마의 뜻풀이는 부족하다.

우리 친정엄마, 이름하여 정용남, 나이 76세. 여염집 규수였던 엄마는 가문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 대궐 같은 기와집에서 머슴을 다섯 명이나 거느리고 살았으니 두 말이 필요 없다. 시골 부자는 바로 일부자였기에 만땀답게 일 속에 묻혀 살았다. 그 일 가운데 하나가 '양재' 였다고 한다. '양재'란 의복 디자인인데 그때 당시는 의례히 한복밖에 없었다. 양재 학원에 다닌 끝에 사범이라는 급수까지 따서 발트를 가지고 시집왔다. 솜씨도 솜씨지만 맵시도 뛰어났고, 눈썹미까지 있었으니 규모 있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다.

아버지는 빈농의 맏아들로 태어나 누이 한 분에 남동생들을 다섯이나 두었다. 할아버지는 막내아들을 낳은 후 폐렴으로 돌아가셨다. 부자집 규수를 맞이한 아버지는 엄마가 과분했으나 워낙 선비 집안이었고, 외모는 흔히들 '막 깎아 놓은 밤'에 비유했고, 재간꾼이어서 '날아가는 새도 잡아 올 사람'이라고 했다. 이런 타고난 영민함으로 동생들 뒷바라지와 함께 수십 년 동안 마을 이장을 집권하시다가 아쉽게도 60대에 생을 마감했다.

엄마는 천하의 한량이었던 아버지를 대신, 집안 살림살이를 도맡아야 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들을 합치면 식솔이 무려 8명이었다. 결혼하자마자 대소가는 물론 동네 사람들의 옷까지 해주다 보니 하루해가 짧았다. 손끝이 암전한 데다가 손이 빨라 별명이 '부지런쟁이' 였다. 바느질이면 바느질, 길쌈이면 길쌈, 살림이면 살림, 눈으로 보고 손으로 하는 일이라면 못 할 것이 없었다. 게다가 하는 일이 얼마나 올찬 지 집이 정갈하기로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다.

승주는 주암댐이 생기기 전에는 행정구역이 보성이었지만 현재는 승주군에 속해 지역이 거의 수몰되고 그나마 '소외'라는 마을이 조금 남게 되었다. 보성하면 삼베가 떠오르는 것이 승주도 삼베로 한 몫을 했다.

처음엔 대마를 직접 재배해서 길쌈을 했다. 다 자란 대마를 채취해 불에다 찌서 껍질을 벗기면 껍질 자체가 삼베의 주원료가 된다. 할머니는 목화로 무명베를 짰고, 며느리 맞은 후로도 잠시 동안 누에고치로 명주베를 짰다. 엄마의 길쌈 솜씨와 속도는 아무도 못 따를 정도로 민첩했다. 삼베도 무명베와 명주베 못지않게 손을 수십 번이나 거쳐야 반듯한 옷감이 된다.

여느 집이나 마찬가지로지만 엄마는 들일도 서슴지 않고 잘했다. 밭도 남들보다 몇 배나 아무지게 맷고, 하는 일마다 할머니 맘에 쏙 들게 했다. 음식 솜씨 또한 두 말 해서 무엇하랴. 식재료가 워낙 없던 시절이라 자연에서 얻어진 것이 전부였다.

겨울이면 엿을 만드는데 얼마나 맛이 끝내주는지 그 유명한 창평 엿보다 더 솜씨가 좋았다. 그다지 달지도 않고 이빨에 달라붙지도 않으며, 생강 맛이 향긋하게 배어나오는 데다 맛이 그만이다. 콩고물까지 입힌 엿은 적당하게 바람이 들어가 구멍이 생겨 와삭 씹히면 엄마의 손맛이 제대로 느껴진다. 엿이 들어간 모든 유과도 똑딱 잘 만들었다.

가을에 나온 감으로 꽃감을 만들고, 감 껍질은 말려서 곱게 갈아 명절에 다식을 만들기도 했다. 엄마는 무서리가 내리면 떡을 하신다. 일명 '감단지'라고 하는데, 지금의 수수단자와 비슷하다. 감에서 단맛이 나오기 때문에 설탕이

나 꿀 따위로 속을 채우지 않는다. 색깔 또한 연한 와인색이라고나 할까. 속고물은 없고 기피인 겉고물은 껍질을 깠  
든부로 한다. 감단자의 찰지고 부들부들한 맛도 친정엄마의 큰 자랑거리이다.

엄마는 정이월이면 또 깻묵으로 장을 만드신다. 이름이 바로 '깻묵장'이다. 깻묵장은 설과 보름을 쇠고 싱건지가  
맛이 없어질 즈음, 또는 국물이 가라앉아 짠맛만 남았을 때 만들어 먹는 장이다. 싱건지 국물에 메주와 깻묵을 이용해  
발효시킨 음식이다. 발효가 다 되면 고춧가루와 참깨를 넣고 쪽파를 송송 썰어 넣어 먹는다. 따뜻한 맨밥에 쳐서 비벼  
먹으면 입안에 맴도는 특유의 미각으로 밥도둑이 따로 없다. 입맛을 돋우는 독특한 괴미가 있다. 그런데 이 깻묵장은  
음력 이월 중순만 넘어가면 그 맛이 없어진다. 인간이 절대 거스를 수 없는 딱 제철 음식이 깻묵장이라고 생각한다.  
엄마의 깻묵장 맛은 우리 식구의 유일무이한 계절 밑반찬이다.

설날 떡국에 넣어서 먹는 닭장 맛이야말로 고소하기 이를 데 없다. 집에서 손수 키우는 닭을 잡아 맛깔난 장을  
만드신다. '핑 대신 닭'이라는 말이 맛을 정도로 닭이 핑 역할을 톡톡히 하기 때문이다. 떡국에는 닭장이 최고라면서  
촌닭의 육질을 우선으로 친다.

또 민물에서 잡은 물천어 조림을 얼마나 맛깔스럽게 잘하시는지 입에 착착 달라붙는다. 통째로 먹을 수 있게 뼈까지 고  
으면 그야말로 입에서 살살 녹는다. 여름철에는 무를 깔고 그 사이에 서리태를 한 주먹 넣고 조리다. 그러면 고기 맛이  
스며들어 별미가 된다. 붓어든 잉어든 빠가사리든 무엇이든지 어지간한 식재료만 있으면 엄마 손은 요술손이 된다.

봄에 감잎이 나올 때, 엄마는 또 김으로 부각을 부치신다. 찹쌀죽을 쑤어 양념을 듬뿍 넣고 김부각을 부쳐 나눠주  
기에 바쁘다. 참깨가 소복히 올려져 있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난다. 김부각은 우리가 갖다 먹는 양보다 들락거리는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는 양이 훨씬 많다. 봄날이 좀 더 무르익으면 가족나무임으로도 부각을 부친다. 가족나무임 부  
각은 향이 특미에 가깝다. 깻잎 부각도 부쳐서 상에 올려졌다.

엄마는 설을 쇠기 한 달 전부터 일손이 배로 늘어난다. 시동생 다섯 명, 그리고 우리 5남매 집에 보낼 이바지를  
챙기기 때문이다. 직접 캐서 말린 쑥 인절미, 고소한 닭장, 난질난질한 떡대, 달큰한 조청, 달달한 엿 등을 미리 보내고  
계신다. 무려 열 집을 날날이 챙겨서 택배로 보내고 나아 설을 제대로 쇠신다.

옛말에 그 누가 '손재주가 많으면 못 산다.'고 했던가. 엄마는 '그집 음식 맛은 장맛'이라는 신조를 지키신다. 우리  
전통을 고집해야만 제 맛이 나와 음식 맛을 좌우한다는 철학을 믿는다. 어느 집처럼 이름을 내걸고, 또는 인터넷을 통  
해 장맛을 알리려 하지 않는다. 워낙 대소가끼리 잘 어울려 살기 때문에 소문 낼 필요도 없고 내색도 하지 않는  
다. 다만, 장 담글 때 장꽃(곰팡이 꽃)이 잘 피는가, 된장은 발효가 적당히 되었는가, 고추장은 잘 삭혀졌는가 등에만  
연연할 뿐이다. 간 맞추는 일은 기본이기 때문이다. 양은 엄마가 소화할 수 있도록만 조절해서 만든다. 알음알음으로  
맛보고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팔아서 가용에 보태기도 한다.

요즘 들어 내가 광목 위에 수를 놓고 있다. 보시더니 집으로 가서 삼베를 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울을 빼으신 것이다.  
울을 빼는 일이란 옷감 자체의 씨줄과 날줄을 적절하게 빼고 배합을 해서 모양을 만든다는 말이다. 처녀 때 옥양목  
으로 혼수품 했던 기억을 되살렸다고 한다. 눈에는 환해서 열 번도 빼겠는데 눈이 침침하시더라. 어찌나 정교하게  
울을 빼놓으셨는지 손색이 없었다.

이렇듯 엄마만의 절대미감과 절대감각으로 지난한 세월을 살아왔다. 한사코 엄마는 '짜잔하다'는 말로 자신을  
감추고, 상대를 더 빛나게 하신다. 지금은 고목나무처럼 손이 굳어져 까끌까끌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칭찬에는 유독  
부끄러워하신다. 평생을 거스를 줄도 모르고, 드러내지도 않고, 겸손한 자세로 엄마 몫 하나 없이 묵묵히 삶을 보듬고  
계신다.

봄빛이 유리알 같은 예쁜 날이다. 프리즘에 비친 엄마의 희고 고왔던 새덕 얼굴을 유년의 기억 속에서 꺼내본다.  
마음은 상큼한 바람을 타고 홀로 계신 엄마에게 달려가 덥석 안겨본다. ☺

# 디자인에 미치다

## Interview

### 창업보육실 금속공예가 추이안



전남여성플라자 내 여성창업보육실에 입주되어있는 Art & Design Studio 추이안 대표는 중소기업청에서 주최한 2012년도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에 「특허(실용신안)화 된 디자인판매와 작품제작」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 받게 되었다. 또한 「2012 Asia ARTZOO Competition」공모전에 'Together' 라는 작품으로 입선되었으며, 여성플라자에서 진행되는 여성창업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차세대 여성 CEO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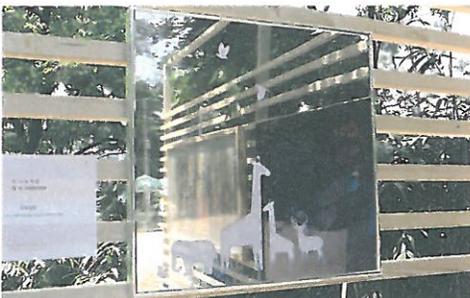
#### Q\_ 금속공예의 매력이라면

차가운 금속 위에 뜨거움(디자인, 톱질, 뿔작업, 망치질)의 손길이 더해지면서 느끼는 희열이죠. 실제로 작업을 통해서만 맞볼 수 있는 금속공예만의 독특한 매력이라 해야 할 겁니다.

#### Q\_ 현재의 추이안을 있게 한 열정

어린시절부터 접하게 되었던 미술이 주얼리디자인으로 방향을 정한 계기가 있었죠. 디자인의 본고장인 이탈리아에서의 공부였어요. 이후 디자인을 시작한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여러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그때마다 디자인에 대한 갈망과 열정은 더해만 갔습니다.

언젠가 이는 지인으로 부터 예물디자인 의뢰를 받았죠. 제 디자인을 좋아해주던 분이었는데 정말 고맙았어요.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모든 걸 믿고 맡겨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에 예기치 못한 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힘들면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맘이 편칠 않았어요. 결국 디자인은 병원에서 시작했어요. 큰 사고를 당한 상태였지만 눈과 손이 다치지 않음을 감사하며 디자인을 완성했고 다이아몬드 세팅을 위해 얼굴에 붕대를 감은 채 서울로 이동했어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신부 신랑에게 예물함을 전달했던 그 순간, 느꼈던 감정은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요. 요즘에도 작업이 느슨해짐을 느낄 때마다 나를 단단히 잡아주는 것은 그때 느꼈던 그 경험과 느낌이예요.

◀ 2012 Asia ARTZOO Competition」  
공모전의 작품 《Together》 입선

좋아한다. 단어가 참 좋아요.

좋아한다. 이젠 그 단어에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좋아한다.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해야 오래 행복할 수 있다고 하죠.

실버, 스테인레스 스틸 그 컬러와 재료에 매료되어 작업을 시작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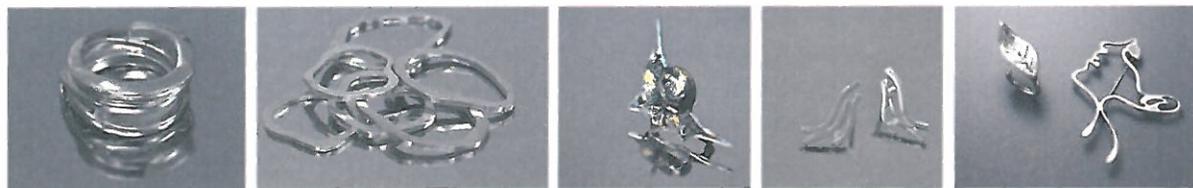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를 표현해주는 매개체가 되었고

그 안에서 지금 저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 Q\_ 전남여성플라자와의 인연

조용히 작업에 몰두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느꼈고 때마침 전남여성플라자의 창업보육실에 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어요. 창업을 시작하고 나서 혼자서 처리해 나가야하는 일들이 많아 두렵고 버거웠던 시점이었어요. 그때 여성창업보육실 입주에 관심과 애정을 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제게 다시 기회와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자문위원분의 관심과 여러가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진행에 있어 부족한 점을 많이 채워 나갈 수 있었죠. 그 결과물로 이제 중소기업청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저의 앞길을 열어준 전남여성플라자와의 인연이 제 작업에 있어서 커다란 전환점이었어요.



## Q\_ 1인기업을 권장한다면

1인기업은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일단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꾸준히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사회는 혼자서 잘할 수는 없어요. 특히 여성분들의 조건은 열악한 편이죠. 하지만 주위에는 이처럼 좋은 프로그램 등등 여성창업자들을 위한 손길이 많죠. 저 또한 전남여성플라자 관계자분들의 도움으로 성공한 사례거든요.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각자 자신만의 꾸준한 준비를 통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

### profile

- 현) ART&DESIGN ST. 대표
- 지적권 확보 : 디자인등록출원(주얼리, 악세서리) 국내 3건, 해외 2건
- 2012년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 특허(실용신안)화 된 디자인 판매와 제품제작 : ARTZOO 자연, 동물, 사람이란 주제로 스테인레스스틸(밀러)에 동물과 나무를 레이저커팅과 표면도장기법을 통해 LED이미지조명을 제작하여 출품
- ADOR 한국/ 이태리 주얼리디자인 협회 회원
- 166호 전국공예품대전 전라남도 대상 및 수상 수회
- 아트클레이 인도 전시를 비롯한 전시 수회 개최
- 유니크하고 모던한 감성을 추구하는 Hand-Craft Design을 추구
- 홈페이지 / [www.about-aa.com](http://www.about-aa.com)

## 화업 70여년, 유화 크로키의 1인자

- 김영자 화백 -



전남 최초 여류화가인 김영자 화백은 1922년 목포 출생으로 제 17회 선전에서 <반찬의 재료>로 입선했고 현재까지도 붓을 놓지 않고 있는 현역화가다.

일본동경미술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이후 전국 순회 60회가 넘는 개인전을 열었으며 '크로키의 1인자'로 칭한다. 일제치하에서부터 해방정국, 6·25 등을 몸소 체험한 고난의 세대로 목포에 귀향하여서는 지역사회에 헌신적으로 열정을 기울였다.

그는 1993년부터 '예목회'를 운영하며 후진양성과 지역예술의 선진화에 기여했다. 특히 지역민을 위한 '토요마당'과 함께 1996년부터 '유달산꽃축제' 대화장으로 8년간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등 지역의 문화와 교육 발전에 큰 공을 세워 2009년도 <목포시민의 상>을 수상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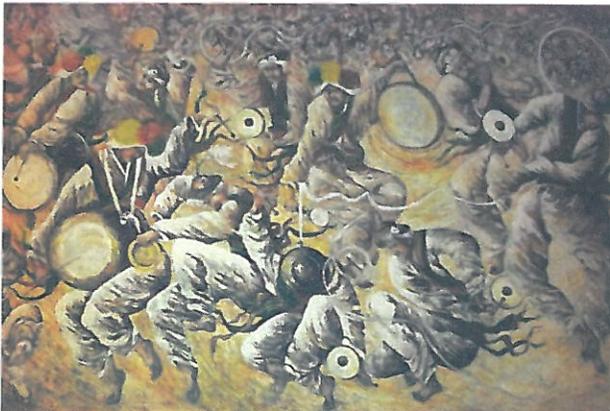
이제 화업 70여년에 가까운 세월, 그는 '유화 크로키의 1인자'로 불린다. 그 결과 이 지역 문화는 그가 뿌린 씨앗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제자들이 화가로 탄생하는 등 남도예술의 폭을 넓혔다.

이처럼 김영자 화백은 자신만의 개성적이고 독보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하며 <아낙>, <물 맞는 여인>, <농악> 등을 비롯한 수많은 유화와 크로키 작품을 창작했다.

"순간의 영감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장구 모양이 나오는지 그린 제가 지금 봐도 경이롭습니다. 외곽선을 적절히 사용하여 장구 모양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애! 농악 풍물패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크로키 세계를 설명하고 있으며 "민속적·토속적이면서 따끔하고 이야기, 리듬이 있는 대상을 동적으로 표현하되 철저히 사생을 바탕으로 한 사실주의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고 했다. 그의 작품에는 대개 맨발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림의 생명력과 힘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위치에 따라 당겨진 발의 모양은 화폭을 최대한 긴장시키고, 응집력을 준다.

또한 1971년 「새전남」 11호에 기고한 글에서도 그의 미술관을 엿볼 수 있다.

"미술은 그 1차적인 목적이 아름다운 것을 그리고 창조하는 작업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순수한 감정으로 아름답게 보는 꾸밈없는 자세입니다. 어떤 전문적인 식견을 굳이 동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도무지 그림엔 문외한이니까' 등의 유리된 생각은 자신의 인간 본능을 무시한 것입니다. 한 작품에 대한 이해와 평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본다는 그 자체에 우선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법과 구도, 색감, 질감 등 구체적인 관찰은 전문가들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농악> 100호, 제주우봉미술관

김영자 화백은 여자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어려운 세월을 견디면서도 붓을 놓지 않은 이 시대 모든 예술가들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전남의 예술과 문화를 키워낸 여성인물로서, 이지역 여성들의 요람인 '전남여성플라자'에 수많은 작품들과 조각·고가구 등을 기증하기도 했으며 후배 여성 작가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

- 참고 : 「김영자, 소설 같은 그림인생」  
정태영 지음, 뉴스투데이 권,  
2007년

## 그곳

정혜옥

며칠째 비는 오는데, 품어내야 할 설움 아직 멀었다는 듯 주룩주룩 비는 내리는데, 무겁게 젖은 먹구름에 싸여 나도 자꾸 주저앉으려는데, 갈 수만 있다면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속대 촘촘한 기름종이 우산 쓰고, 빗물 넘쳐 개구리 울음소리 나는 고무신 신고, 풀냄새 흄냄새 제 몸엣것 온통 풀어헤친 들녘 지나, 정겨운 돌담 올망졸망한 고샅 지나, 개여울 바라보이는 자그마한 와가 앞에 서서 어머니, 하고 들어서면 깨끗 눈빛을 한 어머니, 서릿발 성긴 머리 동백 기름 감아올리고 대청마루에 동그랗게 앉아 계실 것인데……

마당귀에 쭈뼛 자란 부추 몇 줍 베어다 얼핏 데치고, 햇썩 된장국 끓여 앉은뱅이 소반 마주하고 앉아, 어머니 밥숟갈 위에 간간한 고추장굴비 속살 발라 얹어드리고 싶은데……

깊은 밤, 나란히 누워 뼈 불근거리는 작은 어깨 껴안고, 외로움도 야위어 푸석푸석 삭아 내리는 어머니의 술한 밤 또르르 말고 있을 귀뚜라미 소리, 옛일 조단조단 끈 풀어 놓는 낙숫물 소리, 몇 날이고 듣고 싶은데……



정춘표 <사랑안에서>

